

영화



주목! 이영화 ‘님은 먼 곳에’

‘왕의 남자’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이준익 감독 작품으로 ‘라디오 스타’, ‘즐거운 인생’과 함께 흔히 ‘음악 영화 3분작’으로 일컬어지는 영화다.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순이는 3대 독자인 상길을 데려오겠다며 베트남에
간다는 시어머니를 마류하고 대신 베트남에 가기 위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순이는 3대 독자인 상길을 데려오겠다며 베트남에 간다는 시어머니를 만류하고 대신 베트남에 가기 위해 서둘러 향한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메던 순이는 우연히 이태원 삼류밴드를 이끄는 정만을 만나 써니라는 예명으로 전쟁 위문 공연단에 합류해 베트남으로 떠난다. ‘눈물의 여왕’으로 불리는 수애가 주인공 순이 역을 맡았으나 한 줄의 장면도 연기한都没有. 진영이 상길 역을 맡았다. 그밖에 남편 역의 엄태웅 정경호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님은 먼 곳에’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노래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님은 먼 곳에’를 비롯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간다고 하지 마오’, ‘오대니 보이’ ‘수지큐’ 등 당시의 히트곡들이 여려곡 삽입됐다. 7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태국 등에서 활영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눈물의 여왕’으로 불리는 수애가 주인공 순이 역을 맡았으나, 신중한 깊도와 엄숙한 희생 드라마는 잘

진영이 상길 역을 맡았다. 그밖에 남편 역의 염태웅 정경호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님은 먼 곳에’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노래

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님은 먼 곳에’를 비롯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간다고 하지 마오’, ‘오대 니 보이’ ‘수지큐’ 등 당시의 히트곡들이 여러곡 삽입됐다.

7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태국 등에서 촬영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준익 '음악 영화' 3부작...수애의 변신

진영이 상길 역을 맡았다. 그밖에 남편 역의 염태웅 정경호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님은 먼 곳에’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노래

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님은 먼 곳에’를 비롯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간다고 하지 마오’, ‘오대 니 보이’ ‘수지큐’ 등 당시의 히트곡들이 여러곡 삽입됐다.

7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태국 등에서 촬영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전부 모아 놓으니 누가 관리할 겁니까?

中興之君，當以孝宗爲第一。孝宗之德，當以

④ **中華人民共和國憲法** 第三章 國家機構 第一節 全國人民代表大會和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二條 中華人民共和國的一切權力屬於人民。人民行使國家權力的機關是全國人民代表大會和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記念写真館 結婚式場 愛媛県宇和島市宇和島駅前 089-731-0022 089-731-0122

A collage of three images showing traditional Indian wedding decorations. The left image shows a large, ornate golden chariot. The middle image shows a golden elephant statue. The right image shows a close-up of yellow flowers and green leaves.

